

OPEC의 固定油價制 실시와 전망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얼마 남지 않은 80년대는 오는 90년대의 세계에
너지균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뿐 아
니라, 產油國의 사회·정치적 발전 및 非OPEC의 공급
량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더구나 향
후 수년동안은 세계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많은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어떠한 결정도 장래 세계
경제 및 에너지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공급과잉이 문제의 불씨

세계는 현재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石油
의 공급과잉이라는 難題를 안고 있다. 더구나 수요는 O
PEC內的 과잉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급속한 신
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OPEC는 공식적으로 생산
능력의 절반 수준인 1천7백만B/D 생산상한을 설정하
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이보다 적어질 수도 있
으며, 반대로 이란·이라크戰의 종식과 더불어 공급과잉
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상황이 油價구
조를 근본적으로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油價에의 대
응 또한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

油價변동에의 대응은 하나의 카르텔(OPEC)단독으로
보다 내부 및 외부, 즉 非OPEC產油國과의 폭넓은 협
력에 의해서 훨씬 더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低油價로 모든 산유국 피해입어

지난해 油價폭락의 체험은 석유산업이 소위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겨진다면, 產油國간의 경쟁으로
油價가 배럴당 5~7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OPEC회원국뿐만 아
니라, 모두에게 百害無益한 것이다.

특히 86년의 석유시장 불안정으로 OPEC 산유국들은
총 50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OPEC의 石油收入은 절정기였던 지난 81년 2
천8백억달러의 1/4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 투자소요는 오히려 증가하여 모든 OPEC산유국들은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債務國으로의
전락도 예상된다.

그러나 油價폭락으로 OPEC산유국만 피해를 입는 것
이 아니다. 非OPEC산유국들도 심지어 더 큰 타격을 받
을 수 있는 것이다. 實例로써, 美석유회사들이 상류부
문의 사업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사실에서 低油價
에 따른 그들의 교육지책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리그의 수는 81년 수준의
1/5에 불과하다. 더구나 美國 각州에 지불하는 조광료
가 증가하고 있어서 석유회사들은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美석유회사

● OPEC는 油價의 안정회복을 위해 신속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면 안 되었고, 84년 10월 이라크만을 제외한 生産統制로 복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油價는 뚜렷한 호전기미가 보였으나, 高價로 회복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이것이 固定價格 제도로의 복귀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

들은 5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유전의 개발코스트가 매우 높은 英國과 같은 산유국도 油價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 英國의 유전은 비록 운영코스트가 낮고, 지속적인 판로의 확보가 가능할지라도 생산수준 유지를 위한 투자소요가 低유가에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 그러한 연유로 올해 英國의 투자예산 역시 상당히 삭감된 것이 목격되었다.

마찬가지로 共產圈 산유국들도 이번 油價하락의 피해자이다. 특히 外貨收入의 70-80%를 석유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소련의 경우 그 피해가 크다. 또한 과도한 外債과 개발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앙골라 등 제3세계산유국들도 석유시장의 혼란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다.

◇ 油價방어체계의 필요성 대두

따라서 경쟁시장에 있어서 공급자는 재화(석유)의 가격이 운영비(대체로 매우 낮다)를 충당하는 한 市場에 머무르려 한다는 원리를 모든 산유국들은 명심하고, 油價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들은 회수자본이던 매몰자본이던 지나간 투자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을 뿐더러,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장래의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선 당장 존속하는데 의의를 두고 低油價에서도 생산을 계속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특히 생산코스트가 높은 곳에서는—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투자삭감이 불가피하며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가격방어장치는 근본적으로 需給균형을 위한 공급조절

에 달려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생산량을 조절할 것인가에 있다. 과거 메이저들은 수요에 맞추어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油價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시킬 수 있었으며, 따라서 시장은 안정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OPEC가 통제권을 거머쥐자 고정가격을 설정하고 생산량을 시장조절에 맡기는 油價방어정책을 추구하였다. 문제는 OPEC가 고정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한 데 있다. 그 결과 수요감소를 자초하여 油價가 79년 배럴당 31달러에서 85년에 16달러 이하로 폭락하였다. OPEC의 생산량감소는 대체로 석유수요감소 외에 非OPEC산유국의 공급증대에도 기인한다. 그 결과 OPEC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3 이상에서 최근 4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75년에서 85년사이 自由世界에는 약 1천만B/D에 달하는 非OPEC產 원유가 추가공급된 반면, 연료대체와 에너지절약에 의해 7백만B/D의 수요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OPEC의 시장점유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油價방어는 극도로 어렵게 되었다.

과거 OPEC의 시장점유율이 생산량과 엇비슷하여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회원국간의 시장분배가 가능했을 때에는 OPEC는 油價를 방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82년 OPEC의 산유량이 1천9백만B/D이었을 때는 油價방어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85년 생산량이 1천6백만B/D 이하로 떨어지자 油價방어 체계는 점점 불안정해져 갔다. 생산량이 1천6백만B/D 수준이었을 때만 해도 OPEC내에서 생산조정자의 역할을 맡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요감소분을 흡수함으로써 油價방어는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85년 여름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이 2백만B/D까지 감소하자 생

산조정자로서의 역할포기와 아울러 84년 10월에 확정된 생산쿼터량 전부를 생산기로 하는 정책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로서 중산은 시장지향의 가격체계에어나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생산통제에 의해서만 지지될 수 있는 고정가격제가 포기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구하는 시장지향가격(market-oriented price) 정책으로 전환했다.

◇ 油價안정을 위한 OPEC의 대응

가격경쟁이 수반되는 시장점유율 확대정책은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의 격감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로 나타났다. 따라서 OPEC는 油價의 안정회복을 위해 신속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84년 10월 이라크만을 제외한 채 생산통제로 복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만으로서도 油價는 뚜렷한 호전기미가 보였으나, 高價로 회복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지난 86년 8월의 잠정합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생산쿼터량을 준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油價는 약세에 머물렀다. 이것이 고정가격제도로의 복귀의 필요성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OPEC는 심사숙고 끝에 배럴당 18달러의 油價가—사회 및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소요를 감안하여—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수준이라는 데 동의하고, 이를 선택하였다.

이 가격수준은 非OPEC 산유국에게도 석유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제공해줘 장래 세계 석유의 안정공급도 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최종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이완시켜 장기적으로 석유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 18달러의 고정가격설정에는 異見없어

배럴당 18달러의 고정가격제도는 만장일치로 동의한 듯 하다. 그러나 몇몇 회원국들은 高油價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간주하는 한편, 또 다른 회원국들은 OPEC의 방어가능가격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OPEC가 시장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油價를 방어할 수 있으려면, OPEC내에 탄력적인

생산조정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장현실에서는 새로 설정된 고정가격수준까지 油價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지금까지 OPEC는 영구적인 쿼터합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잠정」이라는 단서가 붙은 일시적인 쿼터설정에만 익숙해져 왔다.

일단 영구쿼터시스템이 합의가 되면 거기에는 OPEC의 총생산량 설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계절적 및 기타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응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탄력적인 영구쿼터시스템의 모색

OPEC의 영구쿼터문제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다양한 국가이익을 반영한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등에 많은 재정요소가 요구되는 국가들은 투자를 자극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쿼터량을 받으려 할 것이다. 반면, 자금소요는 많지 않더라도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은 생산능력을 내세워 역시 많은 쿼터량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부류의 국가들은 인구, GNP, 제품의 국내소비, 생산코스트, 대외부채등 사회·경제부문에 중점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거대한 매장량을 가진 후자에 속하는 국가들은 순수하게 석유관련부문에 중점투자가 예상된다.

영구쿼터는 국별 쿼터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될 척도와 여기에 부여될 가중치, 그리고 수요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탄력적인 쿼터제도등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OPEC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며,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생산량조절을 통한 油價방어체계는 異見없이 수용된 쿼터시스템 뿐만 아니라, 쿼터시스템의 이행에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회원국가들의 석유판매행태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어떤 회원국들은 석유판매에 보다 유연적인가 하면, 또 어떤 나라들은 제품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製品의 가격에 대해서는 OPEC내에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제품수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쿼터만큼 생산이 보장되는 시장지향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아직도 생산지분원유계약에 의해 생산을 하고 있

는 나라도 있다. 지분원유의 계약기간은 산유국 정부와 조광회사와의 사이에서 쌍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윤배분의 형태에 대해서는 OPEC 내에서 통일된 定型이 없으며, OPEC의 가격체계에 영향받지도 않는다. 더구나 일부 超重質油도 가격체계와 무관하다. 또한 바터 거래와 회원국들에 불평등한 지위를 조성하는 임가공 거래등 판매형태도 다양하다. 회원국들간의 불평등한 지위는 고정가격방어에 따른 부담을 균등히 지기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OPEC가 배럴당 18달러 수준에서 고정가격을 방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은 문제는 委員會의 만장일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오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희망적이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작년 8월에 합의한 잠정쿼터가 연장 적용될 것이다.

◇ 非OPEC산유국의 공급조절도 시급한 과제

그러나 OPEC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동시에 非OPEC의 생산·공급조절도 시급히 요청되며,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행히 일부 非OPEC산유국들이 가격구조유지를 위해 OPEC와 협력할 의향을 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공급조절량은 아직 미미하여 OPEC의 노력을 돕기에는 불충분하다.

더구나 일부 非OPEC산유국들은 현생산수준을 장기간 유지키 위한 투자자원의 확보를 위해 가격상승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EC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OPEC의 8월합의 이전의 시장혼란은 OPEC이든 非OPEC이든 모든 產油國들에게 油價안정이 세계 에너지 균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체험케 하였다. 만일 앞으로 油價방어체계가 실패를 한다면 그로 인한 새로운 유가붕괴는 세계 에너지균형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非OPEC산유국들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매장량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개발코스트가 높아, 낮은 가격으로 높은 코스트의 원유를 고갈시키는 愚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반면 현재 생산량이 전체 능력의 1/2에 불과하고 있는 OPEC는 궁극적으로 OPEC원유의 의존도가 높아질 때가 오더라도, 현재 유풀

중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수요증가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OPEC의 새로운 가격체계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수요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측면에서의 조치도 요구된다. OPEC원유의존심화에 편견된 공포의식에 사로잡힌 IEA(國際에너지機構) 국가들은 OPEC원유의 하락해택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 인색해 왔다. 즉, 세계시장에서 油價하락의 영향이 최종소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미쳤다.

현재 배럴당 14—15달러의 油價는 명목가격의 하락외에도 美달러가치의 평가절하를 감안하면 그전보다 65% 이상의 실질가격 하락을 기록한 셈이다. 輸入원유단가의 대폭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IEA 국가의 최종소비자들은 여전히 전과같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다만 드문 예로서 美國이 油價하락폭의 약 33%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가장 높게 반영되고 있고, 西獨이 약 20% 전가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국가들은 도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익을 財政收入으로 확보하려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정책은 輸入原油의존도를 감소시키자라는 슬로건 아래, 에너지절약의식과 대체에너지 및 석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시장가격수준과는 아랑곳 없는 소비니즘적인 정치적 에너지목표를 설정하는데 대하여 누구도 설득력을 잃고 만다.

결론적으로 油價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소비국과 OPEC와 非OPEC산유국사이의삼각협력관계가 필요하다. 油價가 붕괴하면 궁극적으로 코스트가 매우 높은 非OPEC산유국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

(피트러리엄 리뷰 / 87. 1)

